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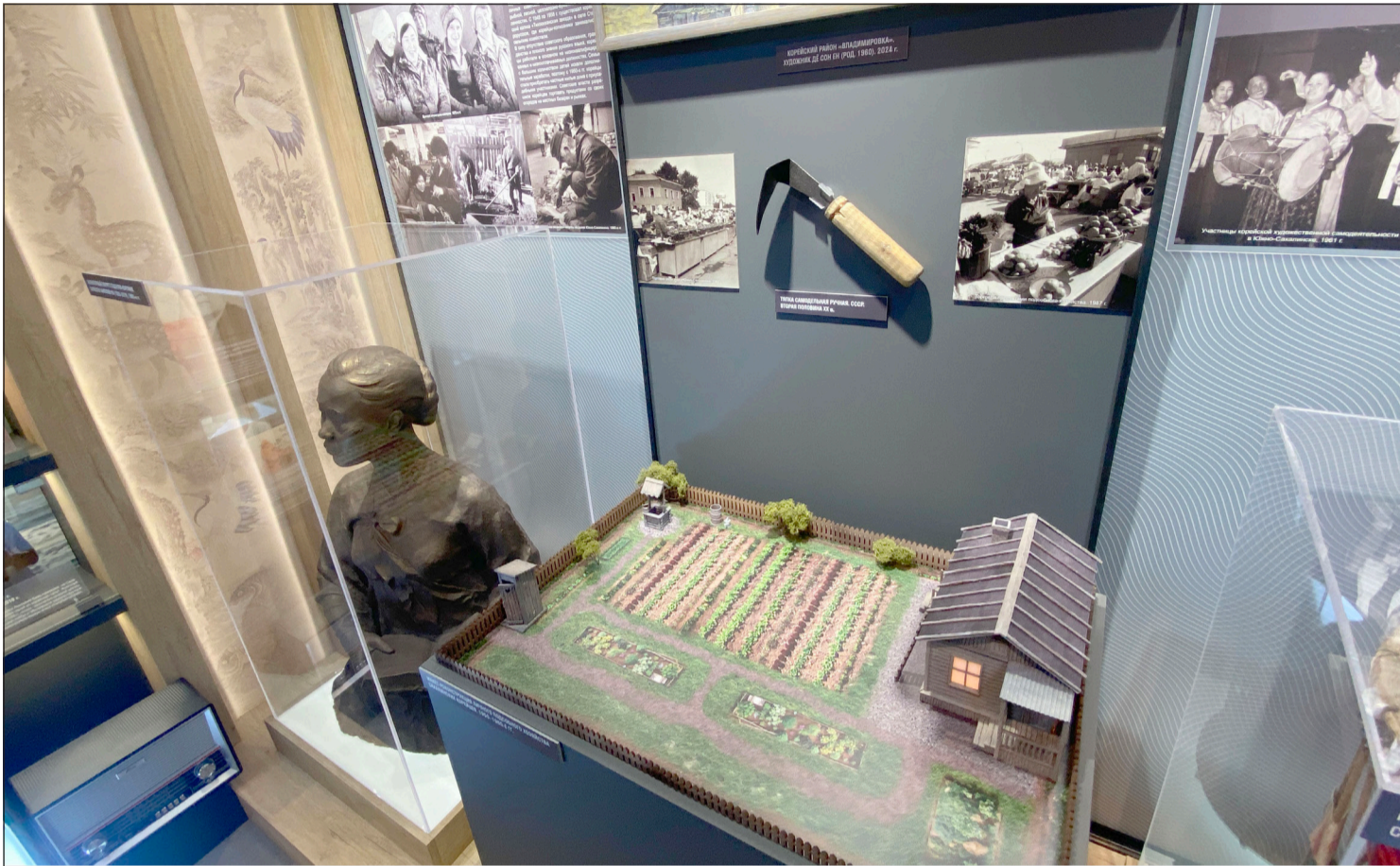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5월 16일(금)
--(음력 4월 19일)--
Пятница
16 мая 2025 г.
№ 19 (1213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8일은 국제박물관의 날이다.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사할린한인'상설전시관.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학교 종업 기간,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알코올 판매 금지

5월 24일(토) '마지막 종(종업식)' 기념이 진행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전 주택가를 비롯해 하나의 학교라도 있는 곳에서 상점의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이러한 알코올 판매 금지 조치는 학교행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금지품목으로 모든 종류의 알코올 형태로서 도수가 높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맥주, 과일주, 사과주, 맥주 음료들도 엄격하게 판매금지가 적용된다.

금지조치를 어길 경우 개인영업자는 2만 - 4만 루블리의 벌금형, 법인의 경우 10만 - 30만 루블리 벌금형이 부과된다.

반면 일반 요식업체와 카페, 레스토랑, 바에서는 알코올 판매 제한은 없다.

〈승리의 별〉행사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 기대

5월 16일(금) - 17일(토) 사할린 남부에서 〈승리의 별〉 군사적 애국행사가 진행되어 주요 행사로서 홍보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 행진이 펼쳐진다.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대조국전쟁에서 소련 국민의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자동차행진 코스는 유즈노사할린스크 - 돌린스크 - 토마리 - 홈스크 - 네웰스크 - 야니와 - 코르사코브 - 유즈노사할린스크까지 약 500km가 되며, 오토바이를 제외한 15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대열로 행진한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지역 지도자들을 비롯해 사회단체, 청년들과의 만남, 집회 및 추모식, 차량행진이 지나가는 각 지역마다 헌화식이 진행된다. 5월 16일 행사 개막식에 앞서 슬라와(영광) 종합기념관에서 집합하여 오전 9시 30분에 개막식을 진행한다.

사할린에서 생태-기후 주간 시작

사할린주에서 연례 생태-기후주간이 시작되었다. 대규모 행사일정은 지역 생태문화의 발전과 〈생태 보호적 변형〉 국민기획 및 지역 기후프로그램 실행을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주로 강의, 세미나, 환경보호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남,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그중에 전 러시아 기획인 '기억의 정원'과 '깨끗한 공기를 선택'에 따른 활동이 있고, '러시아의 물' 활동의 일환으로 물가 청소도 진행된다.

특히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환경보호 수업을 진행, 주민들을 위한 지역 자연보호 구역으로 주제별 견학을 조성하여 이에 전 연령의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과 학생, 근로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생태-기후주간의 주요 목적은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교양을 향상시키고, 꾸준히 자연을 보호하는 습관을 조성하는데 있다.

사할린의 3개 지역에서 수도 및 난방공급망 교체 작업에 착수

토마리, 오하,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난방 및 수도공급망 교체작업이 시작됐다.

이 공급망 교체작업은 지역기획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2025년 - 2030년 기간 '공공 제반시설의 현대화' 종합계획 시책 덕분에 가능해졌다. 지역기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창설된 '생활을 위한 제반시설'국민기획 속에 포함돼 있다.

토마리 지역에서는 난방공급망의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제르웬스키, 로모노소프, 유빌레이나야 거리들에서 3000m 이상의 난방공급망을 교체할 예정이고, 오하에서는 총 3,500m가 넘는 노후된 수도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공사를 시작한다. 북부 중심지들에서는 네웰스크와 제르웬스키, '옥차브리 50년', 크라스노아르메이스카야, 짜프코, '소비에트연방 60년' 거리들에서 수도관들을 교체한다. 대규모 주요 공사는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코르사코브 시지구에서는 더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수도공급망 교체작업은 3개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된다. 삿르위마이스카야 거리 42번지에서부터 자레츠니 9/1 건물목까지 990m의 수도관을 교체하고, 또한 도시 펌프장에서 제 1호 펌프장까지 2000m의 새로운 수도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스레드네코르사코브스키 저수지에서 그와르제이스카야, 139번지 거리의 시 펌프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길이가 약 8000m에 달하는 대규모 수도관 교체작업이 이뤄진다.

사할린주 주택공사사업부의 드미트리 아리스타르호브 장관은 "진행되고 있는 시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난방 및 수도공급망의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대적인 제반시설 개선은 공공서비스의 현대화 작업을 위한 종합적 접근방식의 중요한 일부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원공급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정부와 사할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급망 교체는 중요한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2025년에 사할린주는 3.2km의 난방공급망과 900 m의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사할린에서 수도관 교체에 따른 작업에 착수해 13 km 이상의 수도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약 16 km의 수도관을, 3 km의 배수관을, 5 km의 난방공급망을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30,000명의 어린이를 위한 여름 건강캠페인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정부 회의에서 30,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할 여름 건강캠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캠프는 공식적으로 6월 1일 시작되지만, 일부 시설은 5월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특수군사작전에서 희생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들 어린이는 사할린 내외의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조치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지원제도도 계속 운영되며, 일반 가정은 휴양비용의 85%를 보조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할린테크 알라이드" 지역센터가 추진하는 주제별 프로파일모임 프로그램이 "위스트코"교육훈련센터와 "레노에 오제로", "유빌레이니" 야외 야영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 주 교육부 장관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샤희조르스크의 어린이 500명을 아조브해 연안의 "미르" 캠프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모든 캠프가 화재 예방, 위생,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사할린주 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 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창의적 개척자로서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김 안톤 GS교육센터장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교육, 교사의 지원, 무한한 기회를 채워준다면, 세상에 빛을 밝혀줄 별을 키우는 일이 될 것'

새고려신문에 인물소개 지면에 오를 사람을 찾는 중 필자 지인의 소개로 여러 행사에서 발표를 잘하는 청년을 소개받았다. 그의 이름은 김 안톤이다.

그는 사할린항토박물관에서 '사할린한인'전시회를 준비할 때 IT기술 콘텐츠를 GS 그룹 교육센터에서 담당했다. 이 센터를 담당하는 센터장이 바로 그이다.

1997년생의 김 안톤 이고레위츠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났지만 외할머니, 어머니와 이모들의 고향은 포로나이스크로 외가 식구들에게 익숙한 포로나이스크가 그에게도 애정이 가는 도시라 말한다.

안톤은 학교 9학년을 마친 뒤 사할린국립대의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해 초등학교교사를 꿈꿨다. 사실 영어교사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해에 마침 이 대학교에서 중급 영어교사 전공교육을 중단하게 되어 일반 초등학교 교사교육을 받게 되었다.

안톤은 어릴 적부터 장난감들을 앗혀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뭔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그의 어머니는 안톤이 적성에 맞을 수 있는 직업을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을 거란 판단에 안톤에게 일찍 교육적 직업전선에 나서는 것을 적극 추천

했다.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던 안톤은 마침내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그는 교육학과 심리학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앞으로 교육하는 일에서도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

공부하고, 실습도 많이 하고, 각 교육기관과 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양영소)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2년 반 전에 GS IT(아이티) 회사에서 교육센터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다. 책임감이 높은 사람으로서 이제 25세의 나이에 자신이 이걸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되기도 했다. 이 교육센터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IT 해결책과 IT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센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충 기술교육도 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로봇기술 동아리도 운영하고, 3D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과 구조를 만드는 교육과정도 있다.

김 안톤 센터장이 일을 맡으며 "왜 이 일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뇌를 정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라고 유쾌하게 말했다.

안톤은 2023년에 열린 GS 혁신 가족학교 교장도 맡고 있다. 이 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5학년년부터 9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를 연다는 것은 교육자이자 미래의 부모로서의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질적으로 높은 교육, 교사의 지원, 무한한 기회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빛을 밝혀줄 별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김 교장이 말했다.

꼼꼼하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안톤은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성취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는 창조적 개척자라는 말을 좋아하고, 창조자로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좋아한다. 창의적인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발명하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찾으며, 생겨난 모든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데서 활약하고 있는 안톤은 그가 일하는 회사의 일이 자선가로서, 후원자로서 여러 계획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후원하는 기획들 중에는 주 향토박물관 '사할린한인' 상설전시회를 위해 '해커톤'기획으로 박물관에 '김치만들기'가상현실 기획이 있고, 이미 몇 년간 주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하는 '독서파크' 도서 축제, 로봇공학대회 등이 있다. 안톤은 기술과 역사,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기획을 지원해 최고의 학습현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안톤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어머니, 할머니, 이모, 사촌 등이 가족이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60세 환갑을 맞아 그는 다른 일들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의 생신을 챙겨드렸다. 어머니는 영주귀국하신 할머니의 딸로서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영주귀국대상지원

사업으로 한국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안톤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생일 선물로 엄마를 찾아가 봐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따뜻한 품을 안겨드리고 싶었다고 한다. 어머니로서는 외동 아들의 얼굴 직접 보고, 안아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한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한민족 문화, 예술, 전통, 풍습 등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초급교육과정을 들어 보긴 했는데 너무 바빠서 수료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에 갈 때는 조금씩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며 기뻐한다.

독서를 즐기고, 영화를 보고, 보드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달리기 등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안톤은 순수한 청년이다 안톤은 공자의 명언 중에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목표를 바꾸지 말고 계획을 바꿔라'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혁신적 기술교육을 제공할 줄 알고, 사회복지기획의 실행에 뛰어들며, 긍정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있는 김 안톤에게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창의력을 발휘해 꿈을 이루며 살길 응원한다.

(본사 배운신 기자)

이 모 저 모

<영원한 불꽃> 노래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사할린주 단합대

전승절을 맞아 사할린주 포로나이스크 시 '미르'문화-여가센터의 예술단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샤희초르스크시의 문화-여가센터가 함께 <영원한 불꽃> 노래를 부르며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노래는 나치에 대한 대대적 승리 후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선조들의 영웅적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찬란한 음악 선물이 되었다.

사할린과 7000km 떨어져 있고, 시간대도 8시간이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회관의 직원들은 신속하게 대본을 작성하고, 노래를 녹음하며, 공동의 뮤직비디오(음악 동영상)를 위해 영상자료들을 촬영했다. 공동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위대한 승전일에 포로나이스크 중앙 광장과 자매도시인 샤희초르스크에서 진행되는 축하 공연을 장식하게 되었다.

Песня «Вечный огонь» объединил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Донецкую Народную Республику

К Дн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коллективы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го центра «Мир» города Поронайс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города Шахтерс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ъединили голоса и сердца, исполнив песню «Вечный огонь».

Эта композиция стала ярким музыкальным подарком, увековечивающим память о героизме наших предков спустя ровно восемь десятилетий после триумфальной победы над фашизмом.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омное расстояние почти в семь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и разницу восьмичасовых поясов, сотрудники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могли оперативно создать сценарий, записать вокал и снять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для обще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видеоклипа.

Совместный видеоклип украсил праздничные концерты, проходящие на центра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Поронайска и города-побратима Шахтерска в День Великой Победы!

'워인(군인)' 센터, 3개의 편지. 하나의 이야기: 세대 간 연계에 대한 단편영화 선보여

'군인'센터는 승전 80주년을 기념하여 세대 간의 연계에 대한 단편영화를 상영했다.

명절 기간에 스탈린그라드란 명칭의 월고그라드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이 영화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1944년에, 둘째는 2023년에, 셋째는 2024년에서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전 러시아 박람회장에서 열린 (러시아는 나의 역사. 승리)축제에서 상영되었다고 '워인(군인)'센터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첫째 편지는 참호 속의 소련군 병사가 최전선 포격의 포효 아래 소련 적위대의 안부를 전한다. 그는 '날이 갈수록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고 쓴다.

둘째 편지는 한 해병이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쓴다.

'그의 머리 위로 드론들이 웅웅 소리를 낸다.'고.

셋째 편지는 '젊은 영웅들의 시대' 3차 캠프의 훈련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로 이제 그도 군복을 입고, 군 계급장을 달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지닌 군인이 되어 조국을 위해 일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쓴다.

'군인' 센터는 '이 장면들은 세대 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8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애국자들은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한다!

'군인'센터는 용맹의 바통을 넘겨주는 데 기여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특별히 특수군사작전 지역과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모범을 통해 보여주는 다른 교전 지역 참전용사들인 우리의 교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Три письма. Одна история: центр «Воин» презентовал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о связи поколений

Центр «Воин» презентовал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о связи поколений, приуроченный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Съёмки проходили в Волгограде, который в дни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сит название Сталинград. Картина повествует о трех историях: одной из 1944 года, второй из 2023 года и третьей из 2024 года. Премьера прошла на фестивал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обеда» на ВДН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Центра.

В первой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й солдат из блиндажа посылает красноармейский привет с передовой, под грохот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канонады. Он пишет: «Изю дня в день идем к Победе!»

Во второй истории морской пехотинец пишет письмо домой из зоны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д его головой свистят дроны.

Курсант из третьей смены лагеря «Время юных героев» пишет своей маме, что теперь он тоже воин — с формой, шевронами, четкими планами на будущее — и хочет, как отец, служить Родине. «Эти кадры — лучше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не прервалась. Настоящие патриоты все также, как и 80 лет назад, Верны Отчеству и Народу! — написали в Telegram-канале. — Центр «Воин» гордится, что помогает передавать эту эстафету мужества. Особ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шим инструкторам — ветеранам СВО и других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которые собственным примером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значит любить нашу Родину и уметь ее защищать!».

신선한 청어 약 5톤, 마카로브에서 주민들에게 배급

마카로브 지역에서 '생선의 선물' 자선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약 5톤의 생선을 배급했다. 이 행사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생선' 사회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매해 청어, 송어, 연어잡이 시기에 조업하는 지역 수산업체인 '리박(낚시)'은 무료로 마카로브의 주민들에게 생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 지역에서 생선 조업에 나서는 기업 덕에 가능했다.

'생선의 선물'행사는 수산청과 공동으로 지역 행정부가 주최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마카로브의 주민들에게 신선한 생선 약 5톤이 무료로 배급되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한인들, 어버이날 기념

최근에 사할린에는 한국에서 제정한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많아졌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날을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지난호 게재)는 5월 4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사할린연합회는 (회장 고영순)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립종환)는 각각 5월 10일에 어버이날을 기념했다.

주한인협회 측에 따르면 사할린주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 박순옥 회장이 따뜻한 축하하며, 특히 사할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최 율리아와 오 블라디미르가 노래를 했으며 오 율레그는 브레이크댄스를 추고 '하늘'사물놀이팀이 공연을 선보였다고 '텔레그라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명절 밥상도 차려졌다.사할린연합회(회장 고영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가라즈나야2A에 위치한 연합회의 센터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연을 비롯해 명절 상차림 등을 연합회의 청년그룹과 회원들의 자녀 등이 모두 맡아 진행했다.

이날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무용단, 한 세르게이 바르드(음유시인), 서 일라나, 김 밀라, '셋 고양이'그룹의 공연이 행사 참가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었다. 또한 연합회 측에서 1945-1947년생 회원들에게 선물세트도 전달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립종환) 5월 10일 노인정 어르신들을 위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곁에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 시한인회 활동가, 청년부 젊은이 들 등이 어르신들에게 인사하여 시낭송과 노래로 어버이날의 기분을 안겨주었다.

시한인회 립종환 회장에 따르면 얼마 전에 (주)국악신문 기미양 대표와 김포 사할린동포회 최정순 회장이 시한인회에 한복 40벌 이상을 전달해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정해성·권행자 자선가들이 준비한 금일봉과 시한인회 여성들이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받고, 춤추며 노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사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빨셈 / 김광규

덧셈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고
빨셈을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가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진을 들추어 보는 것은
품위 없는 것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빨셈을 한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영원히 젊고, 늙지 않고, 원하는 걸 다, 다, 다 이룰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라도 제대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이 역시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세상입니다.



다. 그만큼 성공이 힘들어졌지요. 램프의 요청이라도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대라면 도대체 뭘 먼저 대답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걸 하루 온종일 고민했던 유년시절이 새삼 떠오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 역시 빨셈을 공부해야 할 나이. 하지만 전 빨 생각이 없습니다. 인류의 무슨, 문화 유산이라도 남긴 것도 아닌데, 더 쓰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더, 더, 더 쓰고 싶고, '인정받고 못 받고'를 떠나,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책장에 잔뜩 자리한 책들 역시 빨 수가 없지요. 오늘도 서너 권,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할 마음입니다. 국회도서관을 하루 걸러 하루 들락거리는 편입니다만, 그 책들은 제 것이 아니라서 가 아니라, 빌릴 수가 없으니, 감칠맛이 날 때가 많거든요. 터덜터덜 걸어올 때, 다 된 저녁, 머릿속의 그 책들이 떠날 생각을 않고 있으면 저는 영풍문고에 들리지요. IFC 몰. 그런데 인기있는 책들 위주로 구비되어 있지, 제가 구하고 싶은 책들은 늘 그렇듯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핑계일 수 있겠지만, 이리니 책을 잔뜩 사 놓은 인생이 아닐까, 종종 반성합니다.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대부분 선후배 작가들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 반성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LP판은 천 장 넘게 수집했는데, 이걸 대박이니 또 팔 수가 없어요. 한 장에 1백만 원 넘는 판도 생겼으니. 초판에 희귀한 가요 음반은 그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처분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테니, 음악에 조예가 깊은 아들 녀석에게 물려주려고요.

그러니 램프의 요청을 만나면 이렇게 애길하려고요. 먼저 첫 번째 소원.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반드시 빼야 할 것을 리스트로 짜주고. 두 번째 소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래, 이렇게. 마지막 세번째 소원은, 음, 음음, 그래도 뭐, 아쉬울 수 있으니, Undo! 아니 이 세상 모두를 다, 다, 다, 내 걸로 할 수 있는 주문을 만들어 줄래? 오케이, 땡큐, 지니, 발쇼에 쓰바시바,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서울에서 허진원)

(재외동포청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방안 논의

공직자,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없도록 엄정 관리 학생, 군인, 재외국민 등 모든 국민의 선거권 보장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이날 회의는 앞으로 20여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권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에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하였다.

1.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련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25.5.6.~6.3.)을 운영하여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3.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한국정책방송(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 корейцах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 2011 году в Москве вышла книга Д.В. Шина, Б.Д. Пака и В.В. Цоя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ограф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корееведения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би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о 372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ах, сражавшихся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оставленные на основе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убликаций местной периодической печати СССР и России, источников лич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издании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ы сведения о корейцах-фронтовиках, размещенные в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ах, посвященных Побед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а также в периодике корейцев стран СНГ и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Авторы этой уникальной книги сумели по крупицам собрать и восстановить имена корейцев —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и впервые показали вклад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дело Победы над фаш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ей и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 юбилейный год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решили рассказать о вкладе одного из советских народов в общую Победу, обратились к автору проекта издания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Дмитрию Шину с просьбой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книги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Оказалось, что весь тираж книги давно-давно разошелся по просторам СНГ. Дмитрий предоставил электронный вариант книг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смогли отпечатать небольшой тираж данной книги.

11 ма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оторая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людей, увлеченных историей.



В этот день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рассказала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х мигр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проблеме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1937 г.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на уделила не только участ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но и причинам, по которым их подвиги были особо значимыми.

Председа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Лим Ден Хван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 восприятием значения данной книги. ЮСМООК в юбилейный год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хотела издать книгу под черкнуть роль и вклад корейцев в общую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СССР победу.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ениамин Пак отметил значимость книги для понимания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важ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та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ыступил и неожиданный гость. Маргарита Громовна Ким — внучка одного из героев книги. Она поделилась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своем деде Николае Андреевиче Киме, который много рассказывал в семье о событиях прошлой войны, общили в музее.

Презентация переизданной книги вызвала интерес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Было вновь подчеркнута, что книга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стала важным вкладом в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и о тех, кто сражался за Родину, и о роли, которую сыграл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Игра воображения": прошлое встречается с будущим

4 мая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уникальный отчетный концерт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Игра воображения",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учащимися ДШИ «Этнос».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искусство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оздав незабываемое зрелище.



Концерт представил интерактив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где главный герой собирал пазлы в виртуальном мире, чтобы вернуться в мир реальный. Каждый музыкальный номер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этапу его приключения, сопровождаемая проекциями и спецэффектами.

«Музык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нцерта "Игра Воображения"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разнообразные жанры —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музыки до современных поп-хитов.

"Игра Воображения" не только предоставила зри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насладиться музыкой, но 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более глубокому понима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концерт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такие как

каягым, дансо, самульнори, которые зрители могли увидеть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Это уникальное сочетание традиций и современных тенденций, подчеркнуло богатство и разнообразие корей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ДШИ «Этнос». Особо хочется подчеркнуть рол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метод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Ким Евгении, Кан Анны, Ким Анны, Пак Ван Сун, Чео Натальи, Че Ген Сун и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ин Юлии в деле с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ш корр. Фото: ДШИ «Этнос»

Герой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ы «полководец на белом коне» Ким Гёнчхон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алендарь памяти» мы рассказываем о корейских героях, которые посвятили свою жизнь борьбе за свободу родины. В этом месяце мы вспоминаем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ярких и трагических символов сопротивления японскому империализму — легендарного командира Ыйбён, генерала Ким Гёнчхона.



05 МАЙ 2025

Календарь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2025 год

Родившийся 5 мая 1888 года в деревне Сынпхён в семье потомственных военных, Ким Гёнчхон с детства мечтал о службе родине. В те годы мно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аристократии получали образование в Японии. Не стал исключением и юный Гёнчхон, не просто закончивший в 1911 году Армейскую академию в Токио, а ставший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выпускников её кавалери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Но пока он проходил обучение на чужбине, чтобы стать надёжным защитником своего отечества, Корея утратил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этому после выпуска из академии он был вынужден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лужить в армии страны-оккупанта.

Однако под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1919 года Ким Гёнчхон принимает судьбоносное решение — сбежать 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вижению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Его путь лежит через Маньчжурию в Приморье, где он собрал отряд и вступил на путь вооружённой борьбы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империалистов. Став командиром отряда корейских партизан Ыйбён в Приморье, Ким Гёнчхон прославился как неуловимый «полководец на белом коне». Он проводил блистательные операции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и бандитов хунхузлов, терроризировавших местное корейское население. Его храбрость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вдохновлял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но и русских партизан, с которыми он сражался плечом к плечу.

Однако бесстрашный кавалерист Ким Гёнчхон был не только воином, но и настав-

ником, обучавшим молодых корейских бойцов всему тому, что усвоил от своих бывших учителей, ставших врагами — японцев.

Он обладал и писательским талантом. Его дневники наполнены переживаниями не только о сражениях, но и о семье — жене Рю Чжонхва и дочерях, с которыми он воссоединился лишь спустя долгие семь лет разлуки. Н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и у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начались новые испытания.

В 1936 году он стал жертвой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 его обвинили в шпионаже, арестовали и после недолгой паузы в 1939 году отправили в Севжелдорлаг под Котласом в Архангель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в январе 1942 года он умер и был похоронен в безымянной могиле — вдали от семьи и родины, за свободу которой сражался всю жизнь.

История Ким Гёнчхо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нам не только о непримиримой борьбе корейского патриота против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и его гибели в жерновах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Это история выбора. Выбора в пользу долга, достоинства и чести — це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актуальными и сегодня.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Выбор: Дневник Ким Ген Чена, легендарного геро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бор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Сост. Г.Г. и Е.Г. Филянские; пер. с кор. К. Югая. — М.: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В. Ема, 2018. — 280 с. 김강천 (金擎天). URL: <https://egonghun.mps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code=20001&pageTitle=Report&mngNo=70048>(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4.2025).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KBS 역사스페셜 - 백마 탄 김장군, 김경천! 시베리아의 전설이 되었다 (2012). URL: https://youtu.be/5SHKJre1LE4?si=NQqd_4106yh9rals (дата обращения: 30.04.2025).

Источник: <https://t.me/akrk2018/1260>

Ветеран СВО Александр Кан рассказал о роли спорта в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сле травм

Помощь героям спецоперации, получившим серьезные ранения и инвалидность,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и вернуться к полноценной жизни, — непростая задача. Реабилитация требует комплексного подхода, где 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ет спорт. Ветеран СВО Александр Кан отправился на фронт добровольцем. Вернувшись домой без ноги, он начал реабилитацию. Мужчина уверен, что спорт — это важный элемент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В сентябре 2023 года гвардии рядовой Александр Кан добровольно подписал контрак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и отправился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Он служил в отряде штурмовиков. Во время выполнения боевого задания он получил тяжелое ранение от взрыва мины и потерял правую ногу. В декабре того же года его эвакуировали, и он вернулся на Сахалин. Семья встречала его на острове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Александр признался, что пережитые события сильно повлияли на его жизнь.

«Переосмыслил свою жизнь. Отказался от вредных привычек. Понял, насколько хрупка грань между жизнью и смертью, и решил не играть с этим», — делится сахалинец. Александр, несмотря на инвалидность,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спортом и участвует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мест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

фондом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роводит уроки мужества, прививает детям оптимизм и патриотизм.

«Спортивная адаптация — лучшая, какая только может быть. Занимаясь спортом, ты встречаешь новых людей, находишь общение, поддержку,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 уважение»,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Так, мужчина из первых рядов подал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Кубка защитников Отечества, выбрав теннис и стрельбу из лука в положении сидя. Его успехи в этих видах спорта бесспор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лидировал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турнирах. Только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этапе в Сочи Александру чуть не хватило опыта, но в этом году он нацелен на победу.

«Занял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Чуть-чуть не хватило — всего пару очков, чтобы подняться на пьедестал. Это не страшно, наоборот, это только сильнее мотивирует меня на победу», — добавил ветеран.

Во многом Александр Кан благодарен региональному фонду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который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с фронта взял его под опеку, помог оформ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выплаты и документы.

Напомним, специалисты фонда также помогают бойцам улучши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Недавно ветеранам СВО стала доступна льгот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тераны могут получить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взнос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имут участие 7 кандидатов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РК, для участия в 21-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3 июн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семь кандидатов. Шесть из них сдали документы в центризбирком 10 мая. Это Ли Чжэ Мён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ун Сок от партии Новых реформ, Квон Ён Гук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у Чжу Ва от Свободной парти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а также два независимых кандидата - Сон Чжин Хо и Хван Гё Ан. 11 ма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ся кандидат от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им Мун Су. Номера кандидатов в избирательных бюллетенях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 – Ли Чжэ Мён, 2 – Ким Мун Су, 4 – Ли Чжун Сок, 5 – Квон Ён Гук, 6 – Ку Чжу Ва, 7 - Хван Гё Ан, 8 - Сон Чжин Х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кандидатам присваиваются номера, начиная с партии, имеющей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Номер 3 остался вакантным, поскольку Партия инноваций Отечество, третья по величине парт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не выдвинула своего кандидата. Кандидатам от партий, не имеющих депутатских мест, номера присваиваются в алфавитном порядке названия партии, а номера независимых кандидатов определяютс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жеребьёвки.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ризвали отменить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Лидеры России и Китая призывают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анкций и воен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тараясь решить все связанные проблемы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Данный призыв содержится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принятом 8 мая в Москве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ризывают отказаться от политики односторонних репрессивных мер и силов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а также от политики милитаризац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овоцирования там конфронтации. Они призывают предприня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шаг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еэскалацию и устранение угрозы вооружённых инцидентов и масштабных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ыступ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достигли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истории».

Межкорейские обмены не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четыре года подряд

2024 год стал четвёртым подряд годом полного отсутств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поскольку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полностью заморожены.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Белой книге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за 2024 год,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9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не ведётся межкорейская торговля, и, более того, впервые с 1995 года, когда Сеул начал оказыва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Пхеньяну,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а не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н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ни на частном уровне. Между тем,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лагала помощь Пхеньяну,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наводнения. Однак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и разу не ответила на предложения помощи, - говорится в документе.

КНДР и Белорусс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Белоруссия провели в Пхеньяне Третье заседание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торговл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делегации сторон возглавляли вице-премьер КНДР Чон Мён Су и вице-премьер Белоруссии Юрий Шулейко.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машинострое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торговлю и образование. Заседание завершилось подписанием итогового протокола, детали которого не раскрываются. Белорусская делегация, которая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6 мая, встречалась такж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Пак Тхэ Соном. Гости посетил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Пхеньяна, - сообщает ЦТАК.

ВМС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С 8 по 11 мая военно-морские силы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кораблей, включая эсминец «Юльгук Ли И», оснащённый системой Aegis, надводные корабли и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а также около 10 самолётов, в том числе, патрульный самолёт морской авиации P-3, вертолёт морской операции AW-159 Lynx, истребители FA-50 и KF-16. С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участвовали эсминец Lawrence, оснащённый системой Aegis, и патрульный самолёт морской авиации P-8.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из двух стран отработывали реагирование на одновременные атаки противника на море, под водой и в воздухе.

RKI

В Сеуле и Пусане с размахом прошла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4 и 6 мая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ах Пусан и Сеул состоялась историко-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ервым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е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те, кто проживает в крупнейшем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Кореи - Пусане.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й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в соцсетях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Ф в Пусане,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весь коллектив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орского регистра судоход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ихожан Прихода в честь Рождества Пресвятой Богородицы Корейской епархии РПЦ.

Перед началом шествия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россий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а затем участники под музыку военных лет и песни Победы прошли по парку "АТЭС Нару" с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Через два дня, во вторник 6 мая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осольством РФ в Сеуле

аналогичная акция состоялась уже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 Сеуле.

В столиц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обрело еще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й характер: в шеств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К россиянам и белоруса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также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лонна с портретами герое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с Знаменем Победы и штандартом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прошла по центральному улицам Сеула, включая главную площадь города - Кванхвамун.

Шествие вызвало большой ин-

терес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столицы. После шествия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Согласно мнению наблюдателей, с таким размахом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Сеуле не проходил никогд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акции выступил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РК.

Как отметил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главная цель акции - отдать дань памяти героям, нашим предкам, которые отстаивали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одины.

Главы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РФ в Сеуле и Пусане выразили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местным властям за содейств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й,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шествия прошли торжественно и без каких-либо затруднений. Местами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й стали самые известные и популярные районы двух мегаполисов Южной Коре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обеду 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чат Ли Чжэ Мёну

12 мая в Южной Корее официально началась президентская избира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До 2 июня включительно семь кандидатов будут вести агитацию по всей стране, чтобы 3 июня побороться за главный пост. Однако уже сейчас предвыборная гонка все больше напоминает формальность: по всем опросам с солидным отрывом лидиру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

Опросы указывают на безусловного фаворита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Realmeter,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накануне, Ли поддерживают 52,1% избирателей - более чем на 20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ов больше, чем ближайшего соперника Ким Мун Су - 31,1%.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с 6,3% идет молодой кандидат от небольшой партии. Рейтинги остальных четырех кандидатов имеют чисто символ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бщие расклад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огромный для условий Кореи разрыв со ставкой на победу оппозиционера Ли Чжэ Мёна, который крайне сложно - если уже невозможно - отыграть главным конкурентам, правящим консерваторам.

Ли Чжэ Мён, потерпевший поражение на выборах 2022 года с разрывом менее в процент, в этот раз подошел к кампании с более солидной поддержкой. Конечно, этом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пособствовал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за попытку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наменуя старт своей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Ли Чжэ Мён запустил предвыборный тур с митинга на площади Чхонгге в Сеуле - символическом месте, связанном с импичментом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Кандидат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траны",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и поддержку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умело избегая резких тем и сохраняя имидж прагматичного и "готового к власти" политика.

Неразбериха в правящем лагере: история Ким Мун Су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одошла к старту кампании в состоянии кризиса. Ещ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в ка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а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бывший премьер Хан Док Су, но после внутренних конфликтов партийное собрание неожиданно отвергло этот план и поддержало экс-министра труда Ким Мун Су. Сам Ким признал, что был шокирован решением, назвав его "чуждом".

Однако за этой "сенсацией" скрывается банальное отсутствие сильных фигур. Кандидатура Кима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скорее как компромисс на фоне провала стратегии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правого электората. Его стартовая поддержка - лишь 31%, причем это максимум, который удается удерживать за счет партийного ядра.

Кампания Кима началась с визита на рынок в Сеуле и последующего тура по южным городам. Слоган "президент рынков и народа" рассчитан на перехват социального недовольства. Но сам кандидат уже признал, что победа будет "очень трудной", и фактически сосредоточился на мобилизации оставшегося правого электората.

Забег с извест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Политическая динамика ясна: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 55,8% - выступают за смену власти, в то время как сторонники ее сохранения - 39,2% - теряют позиции. Даже внутри лагеря умеренных избирателей преимущество за Ли Чжэ Мёном (54,9% против 24,3%).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кампания становится скорее ареной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масштабов поражения правых, чем для реальной борьбы. Попытки правых втянуть в коалицию третьего кандидата Ли Чжун Сока с рейтингом в 6,3% выглядят как жест отчаяния - сам он уже отверг возможность объединения с Кимом. Кроме того, большинство сторонников Ли Чжун Сока готовы поддерживать именно его, но не голосовать за правых, даже если бы сам он к этому призвал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3 июня Южная Корея,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лучит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И если верить не только цифрам, но и настроениям на улицах, имя этого бу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 Ли Чжэ Мё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Век живи

Сеул, 12 мая – ИА РУСКОР.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100 лет получ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енс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 этом самому старшему получателю 111 лет,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нсионной службы,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январь этого года пособия получал 201 человек старше 100 лет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7,07 миллиона получателей пенсий. Среди них 138 были женщинами, что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63 мужчины. Число 100-летних получателей пенсий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быстрым старением на-

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 2010 году их было всего 13, в 2011 году — 18, в 2012 году — 20, в 2013 году — 31, а к 2020 году — 101.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рост ускорился и в этом году их число превысило 200.

Все 201 получатель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в возрасте 100 лет и старш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лучают пенсии по потере кормильца —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членам семей умерших лиц, которые имели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пенсии по старости или инвалидности.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супруги и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до 25 лет. По данным статистик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апрель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ло 8806 человек старше 100 лет.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осетил Шумшу и оценил готовность площадок к летним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мероприятиям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осетил Шумшу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В рамках поездки делегация оценила готовность площадок к организации летней экспедиции, а также созданию Мемориала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командировки на Шумшу — это решение вопросов определения места размещения лагеря. Сейчас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 это юг и север острова.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ый вопрос, от него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логистика, доставка грузов и перемещение людей. Мы также посмотрели работы, связанные с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транспортной логистики — колонного пути. Это трасса, которая соединит юг и север Шумшу и обеспечит доставку грузов и люде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бот на мемориале и в зон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осмотрели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но принципиально определено — в районе мыса Курбатова. Именно в зоне высадки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лагерь реконструкторов. Это порядка 150 человек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Неделю назад облет острова соверш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ЧС по Камчатскому краю.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уже есть. Это также входит в подготовку к принятию решения о расположении лагеря поисковиков. Сегодня есть два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варианта, где буде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точка размещения — в поселке Байково,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к Северо-Курильску, а также в районе «высоты 171»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 Наша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сейчас — все подготовить. Поисковики, которые придут сюда летом, займу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иском останков наших бойцов и артефактов тех време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инкульт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преда ДФО определяют объем работ по самому мемориальному комплексу. Это подготовка к захоронению останков наших ребят в районе братской могилы на «171 высоте», где шли бои.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ся решение по очистке и демонстрации подбитой японской техники, разработан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определено место установки инсталляции по событиям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подытож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тметим, создани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риурочено к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Комплекс, посвященный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создают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вице-премьера — полпреда Юрия Трутнева.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исполнению поручени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озглави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Сергей Новиков.

Транспортную схему завоза грузов и техники на Шумшу разработ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и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доставку имущества до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морскими судами.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на Шумшу, где отсутствуют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е сооружения, задействуют накатные баржи. Всего с конца марта на остров доставили 3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Ключевые события по открытию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траур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хоронения останков бойцов пройдут 18 августа. Тогда же состои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орядка 150 человек из двух десятков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Шумшу при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федер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пре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Делегация определит объем работ по созданию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тр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ён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В тр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Анивском, Холм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и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егионе выполнено 30,7% 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работ. Однако не вс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справились с поставленной задачей.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долож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ьезное отставание от графика допуст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Муниципалитет должен был приступить к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еще 3 мая, но не сделал этого до сих пор.

— К сожалению, мы отстали от графика. Потому что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й завод, которому мы проплатили асфальт еще осенью, начал работу позже по техн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Сейчас завод работает, 13 мая будет первый асфальт. В сроки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 которые вами установлены — до 30 мая, мы уложимся, в этом нет никаких сомнений, — доложил мэр Неве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 В нашей культуре это вы не подготовили завод. Вы должны были с 1 января сидеть на заводе и отслеживать, чтобы он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вовремя. В итоге другие районы дружно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а вы остались на старте. Исправляйтесь, — сделал замечани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роблемной зоне оказался и город Макаров, где спустя менее года после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пришло в не-

годность дорожное покрытие. Дефекты были выявлены региональ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авлена претензия. К устранению замечаний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т с 15 мая.

— Срок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 — 30 мая 2025 года. Ремонт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его контракта по содержанию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 доложил глава Макар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ергей Фертиков.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подобных ситуаций направлены стандарты качества ремонта дорог,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недрены в этом году.

— По вашему поручению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азработано три стандарта: стандарт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стандарт по закупке материал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укладки асфальтобетона, и стандарт по проверке качества го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Документы на завершающей стадии согласования,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они будут разосланы 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фф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мы запланировали обуч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курируют доро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районах, с практическими выездами на заводы, на места, где веду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и где ведется укладка асфальта,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из выявленных в рамках обследования дорог 37 тысяч кв. м дефектного полотна приведено в порядок 11 382 кв. м. Кроме того,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еще 16 тысяч кв. м дорог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картами.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ин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оки начала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будут зависеть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При эт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на севере региона эти работы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ся не позднее 1 июля.

В апре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амом северн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а — Охинском — впервые опробовали технологию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литым асфальтом. До осени доро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ут вести мониторинг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в Охе. Если эксперимент покажет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то этот опыт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на друг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со сложными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Тогда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ах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ступить к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на два месяца раньше обычного срока.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обороться за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новом сезоне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овом сезон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занимающиеся активным отдыхом, экспедициями и экстремальными видами туризма могут снять фильмы о своих путешествиях и стать претендентами на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главный из которых —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овый сезон конкурса стартовал 1 ма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15 января 2026 г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онкурс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на ежегодной основ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проект впервые включены 7 регионо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и.

— Сахалин — это место, где природа создала уникальные ландшафты для смелых путешествий. Я приглашаю всех, кто любит наши острова и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ни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Фильмы о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непременно вдохновят жителей всей России открывать для себя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еобходимо снять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до 8 минут о своем путешестви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в Арктику и направить его на оценку жюри на сайт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лет.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объявлены 4 основные номинации: «Пешее путешествие», «Зимнее путешествие», «Вод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и «Арктиче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прошедших сезонах, то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регионом-лидером по количеству поданных работ. В регионе было снято 142 фильма. Гран-при прошлого сезона и главный приз —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получил фильм о путешествии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омимо этого, еще четыре фильма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зя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Конкур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олучить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а для региона —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Конкур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проводи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В 2024 году гран-при конкурса завоевал житель Москвы,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на геологическом факультете МГУ имени М. В. Ломоносова Илья Большаков за экспедицию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курильском острове Онекотан путешественник в команде геологов и

вулканологов посетил потухший вулкан Креницына.

В тр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приступили к замене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сетей тепло-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тартовали в Томаринском, Охин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ах. Обновление систем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мероприятиям комплексного плана, реализуемого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период 2025-2030 годов. Он входит в нацпроект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созданны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Так,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заключен контракт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сетей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заменить свыше 3 тысяч метров сетей по улицам Дзержинского, Ломоносова и Юбилейной.

В Охе приступили к капремонту наружных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более 3,5 тысяч метров. В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заменят водовод по улицам Невельского, Дзержинского, 50 лет Октября,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й, Цапка, 60 лет СССР. Завершится ремонт в 2026 году.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работ запланирован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будут вестись на трех участках. А именно 990 метров водосетей заменят на отрезке от дома 42 по улице Первомайской до переулка Заречный 9/1. Еще почти 2 тысячи метров новых сетей проложат от городской насосной станции до станции № 1.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тся на участке от водозабора Среднекорсаковский до городской насосной станции по улице Гвардейской, 139. Здесь заменят магистральный водовод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чти 8 тысяч метров.

— Пров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надежности и качества услуг тепло-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районов. Обновл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важная часть комплексного подхода к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ч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более стабильное и безопасн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ресурсов для граждан,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Отмети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целив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Замена сетей — важная задача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этой цели. По плану в 202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заменить 3,2 км сетей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900 метров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2026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 обновят свыше 13 км. В планах на 2027 год — работы по замене почти 16 км сетей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выше 3 км сетей водоотведения и 5 км теплосе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лагоустроят набережную реки Еланьк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набережную реки Еланька в юж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Она протекает рядом со строящимся ЖК «Южный парк». Поэто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водоема направляется само собой.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мэ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ем Надсадным осмотрел территорию будущей набережно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в городе должно бы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 Это место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любимых у горожан. Мы подарим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м кварталам набережную. И со временем, конечно, сделаем и асфальтированные дорожки, и освещение, и красивый современный сквер. А сейчас нужно просто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с двух сторон реки! Начать можно с небольшого участка. В дальнейшем — здесь будет царить атмосфера уюта и красоты. Люди будут наслаждаться живописным видом. Это важный шаг в развитии город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десь не только строят новые дома, но и расширяют дорожное полот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будет наведен поряд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нитарная очистка лесного массива, уборка заносов ила и песка, а также упавших деревьев и замена грунта. В дальнейшем будущая набережная войдет в список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выбору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Наша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 организовать комфор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оператив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реки Еланьки. Работы станут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м этапом к комплексному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мы решили приступить к дан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службам 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поруче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Кроме того, губернатор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ограм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ставил свой голос за один из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проектов в Дальнем.

Отметим, оценить идеи и выбрать понравившуюся могут вс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йте и у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до 12 июн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김동연,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사할린 동포 어르신 특별 초청

광복 80주년 기념 및 역사적 치유의 의미 경로효친 사상 실천 장한 아버지, 효행자 14명 표창·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사할린 동포 어르신 18명을 특별 초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수원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효도에 대해 "반듯한 사람이 돼서 남에게 욕먹지 말고, 남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뜻 갖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두 발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어떤 날에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호의호식해드리는 것보다 더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매우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고향을 떠나 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특별 초청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9일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종선 사할린동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경기도 제공)

에는 안산 등 8개 시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1천630여 명(국내 전체 5천130여 명의 54%)이 거주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초청한 사할린 동포에 대해 "경기도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는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역사·문화 탐방,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쁘고 환영하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곳에서

오래 사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청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강제 이산의 아픔을 견뎌낸 삶에 대한 위로와 귀향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카네이션에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사회적 메시지도 담겼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을 일구며 사회의 귀감이 된 효행자와 장한 아버지 유공자 14명에게 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도노인회 연합회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이 표창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공로를 기리고, 효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현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마이뉴스)

[우리말로 깨닫다]

K-복소리 어때요? 하늘 닮은 복소리

저는 몇 년째 사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3시간 정도 영남 사물놀이와 앉은반 장구, 양반춤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심곡, 태평가, 한글 뒤풀이, 집장가 등의 민요도 배웁니다. 아직 남에게 보이는 부끄러운 실력이지만, 선생님들과 선배들을 따라서 매달 1회씩 요양원에 국악 치유 공연을 가기도 합니다. 저의 국악 실력은 아직 한참 모자르지만 좋아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치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면 치유는 상호적입니다.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치유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국악 치유, 한국학 치유에 관한 논문도 몇 편 썼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최근에 우리 모임의 선생님들이 귀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K-복소리 어때요? 사이렌 소리>라는 음반을 발매한 겁니다. 저희 모임, 지패 희망세상에 참가하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명예교수인 김형민 교수가 복소리의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반 기획과 작사를 하고, 모임을 이끄는 고경자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어교육 전공 학생이 작곡을 하였고, 한국어를 연구하는 저는 작사를 도왔습니다. 그야말로 한의학과 국악, 한국어교육이 만나 새로운 한국 음악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 연구와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한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래에 사용된 북, 장구, 팽과리, 징 등 우리 타악기의 소리는 한국인의 흥을 보여주는 소리입니다. 노래를 들은 세계 각국의 한국어과 학생과 선생님들은 한국 음악의 매력을 새로 알게 되었다고 좋은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케이팝뿐 아니라 우리 음악을 좋아하고, 한의학의 연구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국악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기도 기대합니다. 사실 민요나 판소리, 우리 춤에 흠뻑 빠진 외국인도 아주 많습니다.

김형민 교수의 연구 내용은 이미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실험동물에 저혈압 일으키는 물질 투여하면 100% 죽는데, 저혈압 일으키는 물질 투여 후 복소리 들려주면 치사율이 현저하게 줄어든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복소리가 심박, 혈압, 신경계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로 위급한 상황에서 복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렌 소리 대신에 우리 복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위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최선이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복소리의 강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복소리를 들으면 심장의 박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쟁에서 북을 울렸던 것도 심장을 더 뛰게 만들려는 이유였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복소리를 비롯한 사물놀이의 소리는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치유 효과도 큰 듯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한의학 연구자와 국악인, 한국어교육과 언어 치유를 공부하는 사람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곧 치유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곧 치유입니다. 복소리도 치유의 소리입니다. 케이 복소리 어때요? 하늘 닮은 복소리요. 힘이 나면 좋겠어요. 케이 복소리 어때요? 구름 몰려오는 소리요. 동두동 동두동.

(기호일보)

5월20~25일, "재외투표 이렇게 하세요"

외교부, 제21대 대선 재외투표 안내문(5개국어) 게시

외교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안내문을 지난 5월 7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5개 국어 별로 게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은 오는 5월 20~25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는 재외투표 기간에 재외공관 또는 추가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소 및 시간은 재외공관마다 다를 수 있어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방문하는게 좋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등)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으나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비자, 영주권증명서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야한다.

지난 4월 24일 마감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친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등록신청 당시 입력한 투표예정 공관과 다른 국가(공관)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가기 편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외교부가 지난 7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21대 대선 재외투표 안내문.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 이하 '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 이하 '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23.6.5.)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센터 내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에 접속하여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운 면허민원처장은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운전면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에서 운전면허 전담 창구를 정식 운영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홈페이지(www.g4k.go.kr)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캠코 인천지역본부, 사할린 동포 어르신에 카네이션·기부금 전달

이번 행사는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후 1990년 한-러 수교를 계기로 우리나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부금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낙상방지 매트 구입 등에 사용된다.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직원들의 사회공헌과 청렴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직접 만든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청렴다짐 편지를 함께 전달했다.

성준호 캠코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기

부행사를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생활하시는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 수산부 이완 라드첸코는 수산업체와 지역 행정부의 협력으로 자선행사 기획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기획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В Макарове жителям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ли около пяти тонн свежей сельди

В Макарове прошл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Рыбный дар», в ходе которой населению безвозмездно передали около 5 тонн рыбы. Эта инициатива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со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рыба». Каждый год в период промысла сельди, горбуши и кеты местная рыболюбцевская компания «Рыбак» безвозмезд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ыбу жителям Макарова.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ся добычей рыбы в регион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овместно с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рамках акции среди жителей Макарова распределили около 5 тонн свежес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 местны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позволя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добны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Он также напомнил, что программу реализуют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ее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должают расширять.

장애물 코스 도전 경기 참가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5월 25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트리움프' 스키-바이에슬론 단지 구역에서 사할린주배 장애물 극복 경주가 개최된다. 경기 참가자들은 3km코스를 달려야 하고, 단체별 경주에도 참가해야 한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되며, 경기 참가자들은 달리면서 다양한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속도와 지구력, 민첩성, 조정력, 체력을 입증해야 한다. 3명으로 구성된 단체는 남성, 여성, 혼성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의 주요 목표는 단시간에 모든 장애물의 단계를 통과하는 것인데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추가하거나 추가 과제가 주어진다.

참가 등록은 대회 공식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пригласи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ях по преодолению полосы препятствий

В воскресенье, 25 м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иумф» состоится Куб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гонкам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ит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в 3 километра, а такж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мандной гонк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как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так и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и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корость, выносливость, ловкость, координацию и силу, выполняя забеги с преодолением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репятствий.

Команды, состоящие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ужской, женской и смешанной категориях.

Главная цель — пройти все этапы за минимальное время. Тем, кто не сможет преодолеть препятствие, прибавят время, либо дад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да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для участия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4분의 3, 동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해

요즘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기존의 현금 결제방식에서 딱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수퍼잡(SuperJob) 서비스의 조사에 도심 근로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 13%만이 전적인 디지털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지했고, 대부분 73%의 시민들은 현금 유통의 배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

들 중에는 디지털 결제방식 도입이 제한적이고, 현금과의 정서적인 교감(말하자면 '동전의 소리와 지폐의 바삭거리는 소리가 좋다.'이다)과 감시 강화로 인한 우려 및 인터넷 연결이 안 될 시 구매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현금 결제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고, 시민들 중 디지털 결제를 지지하는 부류는 대체로 35세-45세(16%)의 연령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령대 그룹은 더 어린 연령대(14%)와 더 고령층(9%)보다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이 10만 루블리 이상(16%)인 사람들은 소득이 그보다 적은 사람들(9%)에 비해 디지털 결제로 전환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

Почти три четверти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е хотят полностью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монет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витие цифровых платежных систем,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е хотят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традиционных способов оплаты. В исследовании сервиса SuperJob участвовали работающие горожане.

Только 13%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полный переход на безналичные платежи. Значитель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73%) возражает против исключения наличных денег из обращения. Среди причин ограничен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безналичной оплаты, эмоциональная связь с физическими деньгами («Мне нравится звук монет и шуршание банкнот»), опасения из-за усиления контроля и риск невозможности совершения покупок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интернет-соединения.

Мужчины более склонны к отказу от наличных денег, чем женщины. Наи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безналичные расчеты находят среди горожан в возрасте от 35 до 45 лет (16%). Эта группа активнее поддерживает данную идею, чем более молодые (14%) и более старшие (9%) респонденты. Люди с доходом от 100 тысяч рублей чаще поддерживают переход на электронные платежи (16%)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и,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меньше (9%).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8-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